

# 주간 통일정세

2016-22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5.28	김정은 이모 고용숙, 김정은 1984년생·8세부터 권력승계 조짐(연합뉴스)
		北 항일혁명투사 김옥순 사망·김정은 조회(연합뉴스)
		北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삼지연군에 전력 공급(연합뉴스)
	5.30	김정은 北中 농구경기 관람·두터운 친선에 만족(연합뉴스)
		北 김정은 곧 200일 전투 진입·또 속도전 독려(연합뉴스)
	5.31	北리수용, 대표단 이끌고 중국 도착·4차 핵실험 후 첫 고위직(연합뉴스)
		김석철 후임 정호범 주미안파 北대사, 석달만에 신임장 제정(연합뉴스)
		北 청년동맹 대회 23년 만에 열린다·8월 평양서 개최(연합뉴스)
	6.1	北 김영남,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연합뉴스)
		北, '200일 전투'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연합뉴스)
北 매체들, '200일 전투' 성과 독려(연합뉴스)		
北김정은, 스포츠용품공장 시찰·체육열기 높아져(연합뉴스)		
6.2	北 리수용, 사흘간 방중 마치고 귀국(연합뉴스)	
	6.3	北 '200일전투' 독려 가속·평양시 사상일꾼회의(연합뉴스)
경제	5.31	北, 잦은 어로사고에도 "해상사고 기록은 없어" 주장(연합뉴스)
	6.1	北 고려항공, 평양中 지난 노선 전세기 운항(미국의소리)
사회 문화	5.29	北 주민이 느끼는 대북제재 영향 아직 미미(자유아시아방송)
	5.30	북한판 '짱통' 페이스북 등장·해킹에는 무방비(연합뉴스)
	5.31	北 주민들, '200일 전투'에 불만 표출(연합뉴스)
	6.1	北 남성 흡연율 43.9%·2012년 대비 8%포인트↓(미국의소리)
	6.3	北 어민들, 보위부의 출어단속 강화로 생계 위협(자유아시아방송)
외교 국방	5.29	北, 오바마 비핵화 운운 철회하며 극차·핵무력 강화할 것(연합뉴스)
	5.30	중국, 북한과 식량제공·핵실험 유보 빅딜(연합뉴스)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 징후 판단·요격태세 지시(연합뉴스)
		北우방 우간다, 北과 안보·군사 경찰협력 중단선언(연합뉴스)
		빈 주재 러시아 대사 "북한 핵시설 사찰 IAEA 요구에 반응없어"(연합뉴스)
		북한노동자 고용 폴란드 기업들에 EU자금 유입(연합뉴스)
北, EU 제재 우리 변화시키지 못해·자강력 강화할 것(연합뉴스)		

5.31	<p>中외교부, 북한은 중요한 이웃·정상적 협력관계 희망(연합뉴스)</p> <p>日정부 “北미사일 중대한 도발” 비판(연합뉴스)</p> <p>일본표류 북한선박 시신 10구 유골 북한에 보내(NHK)</p> <p>IMO-ITU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한 통보 없어”(연합뉴스)</p> <p>北 무수단 미사일 네 번째 발사실패·이동식 발사대서 폭발(연합뉴스)</p> <p>러시아 전문가, 北 무수단 미사일 시스템 불안정(연합뉴스)</p>
6.1	<p>北 매체 “우둔한 힐러리, 현명한 트럼프” 주장(연합뉴스)</p> <p>백악관 北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도발 삼거리(연합뉴스)</p> <p>美국무부, 北리수용 감쪽 방중 예의주사·中에 문의하리(연합뉴스)</p> <p>美전문가 “리수용, 전향적 핵 제안 가능성 크지 않아”(연합뉴스)</p> <p>北 “리수용, 中대외연락부장 담화·김정은의 병진노선 강조”(연합뉴스)</p> <p>中, ‘리수용 방중’ 보도통제 들어간 듯(연합뉴스)</p> <p>北中 대화시동, 비핵화에 이견·한미일 ‘비핵화 압박’ 한목소리(연합뉴스)</p> <p>시진핑, 北리수용에 “냉정·자제·지역 평화·안정 수호해야”(연합뉴스)</p> <p>北 식량가격, 中서 수입 급감에도 안정·러 지원 영향 때문(연합뉴스)</p> <p>반기문, 北미사일 발사 비난·도발 행위 중지하리(연합뉴스)</p> <p>38노스, 북 영변서 핵연료 재처리 의심 활동 이어져(연합뉴스)</p> <p>北, SLBM 수중시험 발사 영상 첫 공개(연합뉴스)</p>
6.2	<p>美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첫 지정·국제금융망 접근 봉쇄(연합뉴스)</p> <p>美 국무부, 제대대상 北 선박 운항 완전 차단해야(연합뉴스)</p> <p>자금세탁 낙인찍힌 北·자발적 거래단절 ‘물결효과’ 기대(연합뉴스)</p> <p>中·베트남, 유엔 대북제재 대상자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연합뉴스)</p> <p>北, 병진노선 변함없다·리수용-시진핑 담화 보도(연합뉴스)</p> <p>中언론, 리수용 방중 맞춰 두면물류센터 계획 보도(자유아시아방송)</p> <p>시진핑-리수용 보도에 온도차·北 관계 中 냉정 방침(연합뉴스)</p> <p>中금융기관, 대북거래 중단할까·北자금세탁우려국 실효 관건(연합뉴스)</p> <p>리수용의 허전한 귀국보따리·북중 관계복원 공허한 구호만(연합뉴스)</p> <p>홍콩전문가 “中, 北 핵실험 자제하면 자체 대북제재 완화할 것”(연합뉴스)</p> <p>中언론인, 中매체가 핵문제 보도 인한 긴 북중해빙 인됐다는 뜻(연합뉴스)</p> <p>中판영언론, 북중 우호 중요성 부각·北매체와는 온도차(연합뉴스)</p> <p>홍콩언론 “북중, 북핵 관련 이견·김정은 방중 어려울 것”(연합뉴스)</p> <p>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실험 강력 규탄·올해 6번째 언론성명(연합뉴스)</p> <p>北 무수단 발사시험 비정상 패탄·개발 포기 의미일 수도(연합뉴스)</p>
6.3	<p>WSJ, 은행 간 국제결제시스템 망에서 북한 차단해야(연합뉴스)</p>



美 국무부, 올해도 테러지원국서 북한 제외·8년째(연합뉴스)
전문가들, 북중관계 급진전 가능성 작아(미국의소리)
러 극동장관, 대북 제재에도 '나간하산 프로젝트' 지속 추진(연합뉴스)
러시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했다(연합뉴스)
EU 대북제재, 2천만원 넘는 자금이전 금지(연합뉴스)
한미일영러 등 20여개국, 유엔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제출(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5. 30.

##### ■ 김정은, 北-中 농구경기 관람…두터운 친선에 만족(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 간의 친선 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노동당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오수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 중앙위 근로단체부장,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조용원 중앙위 부부장, 리종무 체육상 등이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체육인들이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안고 멋들어진 경기 동작들로 훌륭한 경기를 펼쳐 보인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전함.

##### ■ 北 김정은, 곧 200일 전투 진입…또 속도전 독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곧 200일 전투에 진입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이 평양시 교외에 있는 한 의료용 산소생산 공장 건설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곧 200일 전투에 진입하게 된다”며 “북한 창건기념일인 9월 9일까지 공장을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리만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함.

2016. 6. 2.

##### ■ 北김정은, 스포츠용품공장 시찰…체육열기 높아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시설을 돌아보면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놓았다”고 말함.
-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오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했으며, 리종무 체육상 등이 현장에서 이들을 맞음.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5. 28.

### ■ 김정은 이모 고용숙, 김정은 1984년생...8세부터 권력승계 조짐(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과 이모부 리장이 베일에 싸인 김 위원장의 실제 나이와 유년시절, 권력승계 징후 등에 대해 입을 었. 20년 전에 미국으로 망명한 고용숙·리장 부부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1984년생이며 8살 생일 때부터 권력승계 조짐이 있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권력을 세습할 것이라는 조짐은 불과 김 위원장이 8세일 때부터 있었다고 고씨 부부는 주장함. 김 위원장의 8세 생일잔치 때 계급장이 달린 장군 제복을 선물로 받았고 군 장성들이 그때부터 어린 김 위원장에게 경례하는 등 진짜로 경의를 표했다는 것임.
- 고씨는 “주변 사람들이 그(김 위원장)를 그렇게 (권력자처럼) 대하는 상태에서 그가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했다”고 말함.

### ■ 北 항일혁명투사 김옥순 사망...김정은 조화(연합뉴스)

- 북한 최 광 전 인민무력부장의 부인이자 항일혁명투사인 김옥순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옥순의 사망 일자를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가 항일혁명투사 김옥순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7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밝힘.
- 1920년생인 김옥순은 3·4·5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역임했고,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반제투사노병위원회 위원 등을 지냄.

2016. 5. 31.

### ■ 北리수용, 대표단 이끌고 중국 도착...4차 핵실험 후 첫 고위직(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이 31일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北京)을 전격 방문함.
-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북한의 고위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리 부위원장은 수십 명에 달하는 대규모 방중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했을 것으로 추정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측근인 리 부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질 대화 내용이나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 **김석철 취임 정호범 주미안마 北대사, 석 달 만에 신임장 제정(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사실상 추방된 김석철 전 주미안마 북한 대사의 후임자인 정호범 대사(52)가 주재국 임명동의 후 3개월여 만에 신임장을 제정함.
- 31일 미안마 관영 일간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안마' 보도에 따르면 틸 초 대통령은 전날 정호범 주미안마 북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음.

2016. 6. 1.

■ **北 김영남,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1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낸다"며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2016. 6. 2.

■ **北 리수용, 서울간 방중 마치고 귀국(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 리 부위원장은 북한의 방중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서 평양행 북한 고려항공 편으로 귀국길에 오름.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은 리 부위원장은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송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등과 회담함.

다. 공식행사

2016. 5. 31.

■ **北 청년동맹 대회 23년 만에 열린다...8월 평양서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기했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23년6개월만인 오는 8월 개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6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0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회의에서는 제9차 대회를 주체105(2016)년 8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그동안 '청년중시'를 외쳐온 연장선상에서 청년동맹 대회를 통해 젊은 세대의 지지를 토대로 새로운 김정은 시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함.

2016. 6. 1.

■ 北, '200일 전투'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두 번째 속도전인 '200일 전투'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를 1일 평양시내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보도함.
- 이날 조선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회장에는 '자강력 제일주의', '200일 전투', '만리마 속도 창조'라는 선전·구호판들이 세워짐.
- 행사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룡해·김기남·곽범기·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함.

2016. 6. 3.

■ 北 '200일 전투' 독려 가속...평양시 사상일꾼회의(연합뉴스)

- 북한 평양시민들에게 속도전인 '20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평양시 사상일꾼회의가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함.
- 회의에는 평양시 당위원회 김수길 위원장과 당과 근로단체, 문학예술부문, 선동원 등 평양시 각계 일꾼들이 참석함.
- "회의에서는 70일 전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결함들이 분석총화되고 침입식 정치사상공세로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200일 전투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5. 28.

■ 北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삼지연군에 전력 공급(연합뉴스)

- 북한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 양강도 삼지연군 일대에 공급하기 시작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전력생산 정상화, 삼지연군에 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전기가 팡팡 생산되고 있다"면서 "(삼지연)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만부하로 돌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은 지난해 10월 양강도 백암군 하천인 서두수 상류에 백두산영웅 청년 1·2호 발전소를 준공한 데 이어 6개월 만인 지난달 3호 발전소를 완공한 바 있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6. 1.

### ■ 北 매체들, '200일 전투' 성과 독려(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올해 두 번째 속도전인 '200일 전투'의 개시일로 추정되는 1일 성과를 독려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모두 다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온 나라가 200일 전투를 힘있게 벌려(벌여) 70일 전투의 승리와 성과를 더 큰 승리와 성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도함.
- 북한은 5월 초 개최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속도전 '70일 전투'를 벌인 바 있음. 통일부는 북한이 6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200일 전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2016. 5. 31.

### ■ 北, 잦은 어로사고에도 "해상사고 기록은 없어"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물고기잡이 실적이 크게 오르고, 특별히 기록된 해상사고는 없다고 주장함.
- 북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31일 "수산부문에서 고기배들과 배의 설비, 어구의 현대화와 안전향해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많은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다"면서 "2015년 한해만 보아도 물고기잡이 실적은 지난 시기에 비해 비할바 없이 부쩍 올라간 반면에 해상사고가 특별히 기록된 것은 없었다"고 선전함.
- 앞서 북한은 작년 11월께 어부들을 '어로전사'로, 조업을 '물고기잡이 전투'라고 부르면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어획량 증대를 촉구함.

### 나. 주요조치

####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6. 1.

### ■ 北 고려항공, 평양-中 지난 노선 전세기 운항(미국의소리)

-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을 왕복하는 전세기편을 지난달 31일 운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지난해에 있는 야오창 국제공항 웹사이트에 따르면 평양에서 출발한 고려항공 항공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5분 지난해에 도착한 후 예정 시간보다 약 49분 늦은 오후 6시 59분 다시 평양으로 향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이 항공기는 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전세기일 것이라고 VOA는 추정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6. 3.

### ■ 北 어민들, 보위부의 출어단속 강화로 생계 위협(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의 엄격한 출항규정으로 영세 어민들의 어선 상당수가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RFA에 “한창 고기잡이를 해야 할 시기 어선들이 보위부의 까다로운 출항규정으로 바닷가에 묶여있다”면서 “수백 마력짜리 큰 어선을 제외한 작은 어선들은 대부분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또 다른 소식통은 “무전기나 라디오는 먼바다에서 한국이나 외부세계의 방송을 다 들을 수 있으므로 보위부 요원이 동승할 수 없는 소형어선은 바다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고 RFA는 보도함.

## 라. 사회 동향

2016. 5. 29.

## ■ 北 주민이 느끼는 대북제재 영향 아직 미미(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이 체감하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이달 중순 함경북도에서 쌀 1kg의 가격이 5천원으로  
대북제재 이전보다 조금 올랐지만, 급격한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함.
- 이시마루 대표는 “앞으로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하고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면  
결국 북한 주민의 생활에도 영향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관측함.

2016. 5. 30.

## ■ 북한판 ‘짜퉁 페이스북’ 등장…해킹에는 무방비(연합뉴스)

- 북한에 서버를 둔 ‘짜퉁 페이스북’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음.
- 28일(현지시간) CNN머니와 북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  
콘’(starcon.net.kp)이 개설됨.
- 사이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딘 리서치센터’의 덕 마도리 소장임. “북한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 내부 인물이 만든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  
했다. 또 북한 주민이 아니더라도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2016. 5. 31.

## ■ 北 주민들, ‘200일 전투’에 불만 표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실시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200일 전투’를 선포하자 주민들과 심지어는 간부들까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31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이번 200일 전투는 다음달 1일부터 김정일 사망일  
인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됐다”며 “주민들은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 없이 맨날 전투나 벌여서 뭘 하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일부 주민은 ‘인민의 고혈을 짜내는 전투를 도대체 왜 자꾸 벌이냐’고 비난하  
고 있다”면서 “심지어 일부 간부도 ‘금방 (70일) 전투가 끝났는데 또 무슨 전투  
타령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함.

2016. 6. 1.

■ **北 남성 흡연율 43.9%…2012년 대비 8%포인트↓(미국의소리)**

- 북한의 남성 흡연율이 2012년에 비해 8%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VO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15 세계 흡연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2014년 12월 현재 북한 남성 흡연율이 43.9%로 조사됐다”고 전함.
- 북한은 지난 2005년 4월 WHO 담배통제 기본협약에 가입했고, 같은 해 7월 담배통제법을 제정함. 이후 2010년 금연연구보급소를 창설했으며 최근 각 도 소재지에 금연연구 보급기지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5. 29.

■ **北, 오바마 비핵화 운운 철폐피 극치…핵무력 강화할 것(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한 것에 대해 ‘철폐피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 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대변인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해 비핵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다른 곳도 아닌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한 곳에 가서 비핵화를 운운한 것은 철폐피의 극치”라고 비난함.

2016. 6. 1.

■ **北 매체 “우둔한 힐러리, 현명한 트럼프” 주장(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1일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책 관련 발언을 우둔하며 우리 정부를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홈페이지에 ‘트럼프 충격으로 보는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기고문 형식의 글을 게재함.
- 이 글은 “물론 미국대통령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미국의

대조선적침략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트럼프의 '막말공약'은 인기를 올리기 위한 선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함.

- 글은 끝으로 “온 겨레는 노동당의 성의있는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북남사이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며 “한국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 들 것이 아니라 북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함.

#### ■ 백악관, 北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도발 심가라(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실패로 끝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면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가브리엘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앞서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힘.

#### ■ 미국무부, 北리수용 깜짝 방중 예의주시…중에 문의하라(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을 깜짝 방문한 데 대해 미국 정부와 미국 내 전문가들은 기대를 나타내거나 비판하는 대신,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임.
- 미국 국무부는 리 부위원장의 방중이 현재 한반도 정세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중국 측에 문의해 달라”며 답변하지 않음.
- 이런 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접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풀이함.

#### ■美전문가 “리수용, 전향적 핵 제안 가능성 크지 않아”(연합뉴스)

- 미국의 대북 전문가가 지난달 31일 방중한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전향적인 입장을 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RFA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관련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함.
- 그는 리 부위원장의 방중 당일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외교와 군사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 2016. 6. 2.

■ **美,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첫 지정...국제금융망 접근 봉쇄(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함.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됨.
-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됨. 다만, 이번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미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이번 조치는 앞으로 실제 적용 정도에 따라서는 미국이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외교 소식통은 “BDA 제재 당시 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함.

■ **美 국무부, 제대대상 北 선박 운항 완전 차단해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의 운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필리핀 해상에 출몰한 데 대해 무조건 조사하거나 아예 입항을 막을 것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고 VOA가 전함. 필리핀 앞바다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은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령림’(붉은 원) 호로 밝혀짐.
- ‘령림’ 호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북한 선박 27척 가운데 하나로써 지난달 21일에도 필리핀 낙사사 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짐.

■ **자금세탁 낙인찍힌 北...자발적 거래단절 ‘물결효과’ 기대(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제 금융망에서 대북 거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치의 최대 위력은 신용도가 중요한 금융시장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낙인’이 불러올 파급력, 즉 물결효과(ripple effect)에 있다는 게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임.
- 다만, 북한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이후 위장거래 수법을 다양하게 개발해 왔다는 면에서 실제 대외 거래에 얼마나 위축 효과가 있을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임.

2016. 6. 3.

■ **WSJ, 은행 간 국제결제시스템 망에서 북한 차단해야(연합뉴스)**

- 미국의 경제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 간 국제결제시스템 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북한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신문은 2일 자 사설에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은행 절도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 신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기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북한이 위조한 100달러짜리 미국 지폐는 적발하기가 너무 어려워 미국이 '슈퍼노트'라고 이름 붙였으며, 1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재료와 미국 본토를 위협할 미사일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임.

■ **美 국무부, 올해도 테러지원국서 북한 제외...8년째(연합뉴스)**

- 미국이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지 않음.
-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함.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까지 8년째임.
-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했다는 어떤 테러 활동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이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테러보고서와 동일함.

나. 북·중 관계

2016. 5. 30.

■ **중국, 북한과 식량제공-핵실험 유보 빅딜(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대폭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실험 계획을 유보시켰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춘(博迅)이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지난 17일 노동당 7차 대회 때 대기 중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하고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 이런 빅딜을 함.
- 소식통들은 이번 북·중간의 식량지원-핵실험 유보 빅딜에 대해 '북한의 핵 사기'라고 지칭함.

2016. 5. 31.

■ **中외교부, 북한은 중요한 이웃...정상적 협력관계 희망(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31일 “조선(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은 북중관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함.
- 그러나 리 부위원장의 방중 사실과 방중 일정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관련 부문의 발표를 주목해달라. 저는 현재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 없다”,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2016. 6. 1.

■ **北 “리수용, 中대외연락부장 담화·김정은의 병진노선 강조”(연합뉴스)**

- 지난달 31일 방중한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동지는 담화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조선노동당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신데 대해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함.
- 앞서 중국 대외연락부는 전날 리 부위원장과 쑹타오 부장의 회담과 관련한 발표문에서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양측이 북·중 간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양당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힘.

■ **中, ‘리수용 방중’ 보도통제 들어간 듯(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의 방중과 관련해 보도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리 부위원장은 1일 방중 이틀째를 맞았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 방중에 대한 분석이나 논평 기사 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중국 언론들은 관영 신화통신 기사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 발표를 인용, 리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아 쑹타오(宋濤) 중련부 부장과 회담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전함.
- 중국 언론들의 이런 태도는 최악의 냉각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접촉의 민감성을 고려해 중국 당국이 강력한 보도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을 낳고 있음.

■ **北中 대화시동, 비핵화엔 이견…한미일 ‘비핵화 압박’ 한목소리(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향후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흐름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됨.
-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메시지를 교환하고, 특히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관계에 빠졌던 북중은 관계 복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만 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됨. 오히려 북한은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간 면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오갔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음.

■ **시진핑, 北리수용에 “냉정·자제…지역 평화 안정 수호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저녁 메인뉴스에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 간의 면담을 첫 뉴스로 보도하며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함. 화면상에는 북한 측에서 리 부위원장 외에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리창근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리길성 외무성 부상 등 앞줄에 대표단 7명이 참석한 장면이 공개됨.

2016. 6. 2.

■ **中·베트남, 유엔 대북제재 대상자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연합뉴스)**

- 중국과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의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짐.
- 2일 현지 정가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베트남도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음.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을 추방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에서 해외를 오고 갈 때 베이징을 주로 경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함.
- 중국과 베트남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 이런 조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임. 이들 국가는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의식해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 北, 병진노선 변함없다…리수용-시진핑 담화 보도(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따뜻한 인사와 구두친서를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 부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담화에서 “노동당 제7차 대회는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 자주노선, 선군혁명노선, 주체적통일노선, 새로운 병진노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하지만 통신은 김 위원장 구두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이날 만남에는 리 부위원장과 시 주석을 비롯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양제츠(楊潔志<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 송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전 주북 중국대사 출신의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 덩쉐상(丁薛祥) 중앙관공청 상무부주임이 참석함.

#### ■ 中언론, 리수용 방중 맞춰 투먼물류센터 계획 보도(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언론이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시점에 맞춰 북중접경지역에 위치한 투먼(圖們)국제물류센터의 개장 소식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투먼시와 연변일보 1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시와 마주한 중국 지린(吉林)성의 투먼국제물류중심이 오는 9월 정식 개장한다고 전함. 투먼은 도로는 물론 철로로도 북한과 연결돼 있으며, 북한 나진항과도 가까운 교통의 요지임.
- RFA는 “(이는) 속단하긴 이르지만, 리수용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중 간 경험 진전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 ■ 시진핑-리수용 보도에 온도차…北 관계 中 냉정 방침(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난 1일 담화와 관련한 양국 관영 매체의 보도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목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 부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인사와 구두친서를 전달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일 보도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양국 간 핵개발 등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맞춰 보도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방향에서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미국까지 겨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양국이 과거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덧붙임.

#### ■ **中금융기관, 대북거래 중단할까…北자금세탁우려국 실효 관건(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함에 따라 미진하게 남아있는 중국 금융기관의 대북거래마저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짐.
- 미국이 지난 2월 시행한 대북제재법 후속 조치인 이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면서 북한과 금융거래가 남아있는 중국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특히 중국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당국의 지시 이전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자체 기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야까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북한과의 거래는 큰 타격을 입고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지만 미국은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북송금 루트를 완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는데 중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임.

#### ■ **리수용의 허전한 귀국보따리…‘북중 관계복원’ 공허한 구호만(연합뉴스)**

- 북한 정권의 핵심실세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임.
- 리 부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 카운터 파트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송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 등과 회담함.
- 양측의 이번 고위급 접촉은 무엇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양측 관계가 사상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음. 전면적 대북제재로 사면초가에 놓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미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공세에 시달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옴.
-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접촉 결과는 너무나 ‘싱거웠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양측이 관계 악화를 막자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룬 만큼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음.

#### ■ **홍콩전문가 “中, 北 핵실험 자제하면 자체 대북제재 완화할 것”(연합뉴스)**

- 중국이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 교수는 2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작년 10월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전개된 관계 개선 노력과 같은 맥락”이라며 “앞으로 북중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함.
- 다만 장 교수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점은 중국에 딜레마”라며 “앞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됐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냉각되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말함.

#### ■ **중언론인, 中매체가 핵문제 보도 인한 건 북중해빙 안됐다는 뜻(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간 회담 내용 가운데 핵 문제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북중 관계가 아직 해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중국 언론인 덩징(鄧璟)은 2일 봉황망(鳳凰網)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 관영 신화 통신이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 간 회담 내용을 전한 407자의 ‘시진핑 조선노동당 대표단 회견’ 기사에서 국제 사회가 가장 주시하는 북한 핵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덩징은 양측이 아직 중대한 난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리 부위원장이 중국 지도자로부터 어떤 내용의 구두 서한을 가지고 김 위원장에게 돌아갈지와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양측이 공개 또는 비공개 외교 통로를 통해 협상을 개선해 나갈지 등이 모두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함.

#### ■ **中관영언론, 북중 우호 중요성 부각…北매체와는 온도차(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해 보도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일 1면 기사를 통해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의 시진핑-리수용 면담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함.
- 관계 개선을 더욱 부각시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비교하면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북·중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낮은 톤으로 발신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임.

#### ■ **홍콩언론 “북중, 북핵 관련 이견…김정은 방중 어려울 것”(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치국 부위원

- 장을 이례적으로 접견했지만, 리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 북핵문제에 대한 북중 간 이견이 상당히 노출됐다는 분석이 홍콩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사평론가 위무(余木)는 2일 홍콩경제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리 부위원장의 방중이 표면상 노동당 제7차 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냉각된 북중 관계 개선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양측이 아직 중대한 난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리 부위원장이 중국 지도자로부터 어떤 내용의 구두 서한을 가지고 김 위원장에게 돌아갈지와 이에 따라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양측이 공개 또는 비공개 외교 통로를 통해 협상을 개선해 나갈지 등이 모두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함.

### 2016. 6. 3.

#### ■ 전문가들, 북중관계 급진전 가능성 작아(미국의소리)

-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박 3일간의 깜짝 방중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했지만 북·중 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상임연구위원은 VOA에 “리수용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원래 정상적 트랙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지난 3~4년 동안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말함.
-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티븐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도 “핵실험을 계속하는 김정은의 방문을 수용하는 게 중국에 부담이지만 김정은이 실제로 중국 방문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북·중 관계의 급진전 가능성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 모두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함.
-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해 다시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다. 북·일 관계

#### 2016. 5. 30.

#### ■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 징후 판단…요격태세 지시(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 요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NHK가 30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탄도미

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괴조치 명령’을 이날 내렸다고 NHK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함.

-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3 부대를 배치해 경계 및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함.

2016. 5. 31.

#### ■ 日정부 “北미사일, 중대한 도발” 비판(연합뉴스)

- 북한이 31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 도발을 했다고 비판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미사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반응함.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관망도록 대응을 하고 있다”며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강조함.

#### ■ 일본표류 북한선박 시신 10구 유골 북한에 보내(NHK)

- 일본이 작년 11월 이시카와(石川)현 앞바다에 표류한 북한 목선에서 발견된 시신 10구의 유골을 북한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와지마(輪島)시는 30일 북한 조선적십자사가 반환을 요구해온 시신 10구의 유골을 북한에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음.
- 북한 조선적십자사는 올 3월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와지마시에 유골반환을 요청해 왔으며 시 당국은 인도적 관점에서 유골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NHK는 전함. 다나카 쇼지(田中昭二) 와지마시 복지환경부장은 “인도적 관점에서 반환하기로 했다”면서 “유골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함.

## 라. 북·러 관계

2016. 6. 1.

#### ■ 北 식량가격, 中서 수입 급감에도 안정...러 지원 영향 때문(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급감했는데도 시장 가격은 안정세를

-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한국의 민간연구단체인 GS&J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4월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2천363t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 수준에 불과함. GS&J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지난해 심각한 가뭄 때문에 가을 작황이 부진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주민들에 대한 곡물 배급량이 줄었는데도 이처럼 곡물 수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에서 지원한 밀가루와 메주콩이 들어오면서 식량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다”며 “청진시 수남장마당에서 밀가루 1kg에 북한 돈 3천 500원인데, 이는 당대회 기간에 비해 절반으로 내린 가격”이라고 말함.

### 2016. 6. 3.

#### ■ 러 극동장관, 대북 제재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속 추진(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 간 복합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한국 측의 불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거듭 주장함.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처 업무 결산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 갈루슈카 장관은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결의에는 그러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강조함.

#### ■ 러시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했다(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힘.
-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행보고서 제출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해당 문서가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러시아 상주 대표부 채널을 통해 제재위원회에 전달됐다”고 확인함.
- 한편 자하로바는 앞서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밝힘.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같은 집단적 결정은 어떤 문제가 특정 국가의 일방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안보리를 우회한 모든 일방적 행동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5. 30.

### ■ 北우방 우간다, 北과 안보·군사·경제협력 중단선언(연합뉴스)

-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우간다가 한·우간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군사 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함. 우간다는 또 우리나라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 이는 우간다의 대(對)한반도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핵 압박 외교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이 우방인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도 고립된 행동을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우간다는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 빈 주재 러시아 대사 “북한, 핵시설 사찰 IAEA 요구에 반응없어”(연합뉴스)

- 북한이 핵시설을 사찰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 입국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기구 상주 러시아 대사가 30일(현지시간) 밝힘.
- 블라디미르 보론코프 대사는 이날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아직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려는 IAEA와의 접촉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IAEA는 북한이 허용하면 사찰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다음 달 6~10일로 예정된 IAEA 상반기 이사회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획기적 발표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 북한노동자 고용 폴란드 기업들에 EU자금 유입

-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기업 일부가 유럽연합(EU)의 지역발전기금(ERDF)을 받았다고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 연구팀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함. 이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와 영문 예비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폴란드에만 400명 넘는 북한 노동자가 32곳 이상의 다양한 지역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같이 밝힘.
- 연구팀이 내놓은 ‘EU 내 북한인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 보고서를 보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CRIST)는 2009년 11월 ERDF의 한 부분으로서 폴란드산업발전기금으로부터 3천750만 유로(495억 원)를 대출받음.
- 연구팀은 이를 두고 “EU 기금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함.

■ **北, EU 제재 우리 변화시키지 못해...자강력 강화할 것(연합뉴스)**

- 북한은 30일 최근 유럽연합(EU)이 광범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자강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EU의 제재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제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며 제재는 우리의 자강력만 더욱 강화해줄 뿐”이라고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대변인은 “유럽동맹의 이번 제재는 미국이 유엔 헌장까지 위반하면서 만들어낸 단독 제재를 본딴 것”이라고 평가하며 “유럽동맹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힘.

2016. 6. 1.

■ **반기문, 北미사일 발사 비난...도발 행위 중지하라(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1일(현지시간)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한 북한에 대해 “도발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함.
- 반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개발을 금지한 유엔의 대북 결의들과 제재는 “완전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전함.

2016. 6. 2.

■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실험 강력 규탄...올해 6번째 언론성명(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최근 잇따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1일(현지시간) 채택함.
- 안보리는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뿐 아니라 4월 말 이뤄진 탄도미사일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도발 행위를 강력히 비난함.
- 성명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유엔 회원국에는 북한 제재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주문함.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평화롭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 6. 3.

■ **EU 대북제재, 2천만원 넘는 자금이전 금지(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최근 승인한 대북제재는 북한 내 금융기관들과 1만5천유로(약 2천만원)를넘는 자금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됨.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과 29일 승인된 유럽연합(EU) 대북제재(EC 329/2007) 의 '5a 조항과 5c 조항'에 대한 지침서를 2일(현지시간) 내놓음.
- 지침서는 “5c 조항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는 예외를 빼고는 북한과의 자금이전거래를 금지한다”면서 “특히,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북한 내 금융기관과 어떠한 거래를 새로 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함.
- 지침은 또 5a 조항은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결정한 북한내 기존 사무소들과 자회사들 또는 은행계좌들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들과 소유 지분들, 외환결제 제휴관계들도 청산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함. 이외 북한에 지점,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등을 새로 개설하거나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과 출자, 외환결제 제휴관계를 새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임.

■ **한미일영러 등 20여개국, 유엔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제출(연합뉴스)**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20여 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 2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관계자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따른 제출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20여개 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 보고서(Implementation Report)를 냄.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다수지만, 시한을 넘겨서도 접수됐던 관례로 미뤄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5. 31.

■ **IMO·ITU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한 통보 없어”(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세 차례 발사 실패한 무수단(사거리 3천k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재발사할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관련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영국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밝힘.

- IMO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함.
-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북한이 어떤 통보를 해온 적은 없다”며 “위성 발사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라면 ITU 권한을 벗어난다”고 말함.

#### ■ 北 무수단 미사일 네 번째 발사실패…이동식 발사대서 폭발(연합뉴스)

- 북한이 31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또 실패함. 지난달 세 차례 실패에 이어 네 번째 실패임. 이번에는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20분께 강원도 원산지역에서 불상(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1발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 상황을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힘.
- 북한이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다시 군사적 도발 모드로 돌아설지 주목됨.

#### ■ 러시아 전문가, 北 무수단 미사일 시스템 불안정(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이 아직 러시아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방해 자체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가 31일(현지시간) 밝힘.
- 러시아의 미사일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국가 모임) 연구소’ 유라시아통합과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도에서 엔진 연료의 비정상적 연소로 계속해 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함.
- 예브세예프는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의 발사 시도가 실패한 지상 발사 무수단 미사일과 지난달 말 북한이 동해에서 발사했던 SLBM이 모두 R-27을 모방한 동일 유형의 미사일이라면서 “이렇게 보면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이 모두 5차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 6. 1.

#### ■ 38노스, 북 영변서 핵연료 재처리 의심 활동 이어져(연합뉴스)

-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시작했거나 혹은

준비 중임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밝힘.

-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머뮤데스 연구원은 이 매체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지난 22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에 “방사화학실험실 옆에 액체저장용 탱크나 그와 비슷한 형태의 물체를 적재한 두 대의 무개화차가 새로 나타났고, 방사화학실험실 부속 화력발전소에서 소량의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함.
- 또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건설 중인 실험용경수로(ELWR)의 부속 변전소 조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北, SLBM 수중시험 발사 영상 첫 공개(연합뉴스)

- 북한이 4월 23일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북한명 '북극성')의 비행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란 제목의 새 기록영화에서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이 물 위에서 점화되어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함.
-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를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SLBM 비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의도에 주목하고 있음.

2016. 6. 2.

#### ■北 무수단 발사시험 비정상 패턴…개발 포기 의미일 수도(연합뉴스)

- 북한이 한 달 여 사이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시험을 무리하게 4차례나 시도하고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무수단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말함.
- 미국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북한전문 38노스에 기고한 분석 글에서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시험 관행은 물론 발사시험이 실패할 경우통상 수개월에서 1년에 걸쳐 실패 원인을 분석, 바로 잡은 후 다시 시험을 실시해온 북한의 관행에 비춰서도 이번 행태가 매우 비정상적임을 강조함. 이러한 행태의 이유로 그는 발사시험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 지도부의 조바심이나, 무수단의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수단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개발 실무팀의 초조감 등의 가능성을 지적함.
- 북한이 지난 2003년 처음 무수단의 모습을 선보인 후 지난 4월 첫 발사시험 때까지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은 옛 소련에서 입증된 설계와 엔진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 수 있으나, “같은 로켓 엔진의 제작소가 영국 공장에서 아일랜드 공장으로 옮겨진 것만으로 발사에 실패한 경우도 봤다”며 안정적인 미사일 개발의 어려움을 지적함.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5.30		미국 공화당 상원 대표단 누가 美대통령 되든 한미동맹 확고(연합뉴스)
	5.31	한미일 6자 수석 내일 도쿄서 회동·안보리 결의 이행 논의(연합뉴스)	
	6.1	한미일, 대북 압력 통해 북한이 생각 바꾸게 해야(연합뉴스)	
	6.2		한일 핵무장 대비·美위성턴서 '한미일 핵공동관리론' 대두(연합뉴스)
	6.3		이시히 "美 한국에 '남중국해분쟁 중재관 결 지지 표명 요청'(연합뉴스)
		한미 재무장관회의 오늘 개최·환율·통상문제 논의될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5.29	한중 자치단체장 회의 첫 개최·중국 고위급 일제히 방한(연합뉴스)	
	6.1		中, 한국에 '리수용 방중 통보한 듯·소식통, 우회회법으로 시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5.29		日, 독도는 일본땅 주장 시료관 개관·축하 행사에 차관급 참석(연합뉴스)
	6.3	신각수 前주일대사 "한일 남북통일 협의 본격화해야"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5.28		중사회과학원 美대선 과정서 미중관계 심 각하게 악화(연합뉴스)
	5.30	中 남중국해 함대 군사훈련에 마일 호주 추적감시(연합뉴스)	美국방 “中, 남중국해에 만리장성 구축” 비판·中 발끈(연합뉴스)
	6.2	美 관계복원 모색 北·中에 강력 경고·비핵화 원칙 거듭 강조(연합뉴스)	
		미·중, 북한 놓고 가짜음 팽팽·내주 전략대화서 격돌(연합뉴스)	
	美IT, 중국산 철강 담합 등 조사착수·미·중 무역전쟁 불씨(연합뉴스)		中, ‘北지급세탁우려’국 지정에 “독자적 제재 반대”(연합뉴스)
6.3	美상무부 中통신기업 화웨이 조사 과장·北놓고 美·中 갈등 격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28	미국인 "원폭투하 잘한 일" 의견 반반·백인·남성 지지율 높여(연합뉴스)	
		역사적 포용·견고한 미일동맹 확인시킨 오바마(연합뉴스)	
		美언론, 오바마 히로시마行에 “사과 안하며 核위험성 부각”(연합뉴스)	
	오바마 히로시마서 비핵화 강조했지만 핵군축 방안은 없어(연합뉴스)		
	츄스키 등 美학자 80명, 美정부에 “오키나와 기지 철수해야”(연합뉴스)		
5.29		日언론,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역사적·핵 없는 세상 멀다(연합뉴스)	
6.1	美 대통령 전용기서 日외무성에 전화 “히로시마 환영 고맙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5.29		아베 베트남·스리랑카와 中 해양진출 공동 대응 합의(연합뉴스)
	5.30		일본, 센카쿠 인근섬 지위대배치 앞당긴다·中 견제 견결음(연합뉴스)
	5.31	中, 'G7 남중국해 선언'에 항의·대사 초치한 듯(연합뉴스)	
		中 외교부 "위안부 세계유산 피해국 민간단체가 신청 검토"(연합뉴스)	
	6.2		日, 위안부 자료 세계유산신청에 경계·모든 힘 다해 저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6.1		러시아, '쿠릴열도 반환' 안한다 거듭 강조(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5. 30.

##### ■ 미국 공화당 상원 대표단, 누가 美대통령 되든 한미동맹 확고(연합뉴스)

- 조니 언스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30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우리가 대통령에게 충분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함.
- 언스트 의원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미연방 상원의원 초청대담’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에 우려점이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보통 약간 지저분(messy)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선 주기와 상관없이 미국 상원 차원의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이나 의지는 변함없고 확고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함.
- 여성인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의원은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의원, 댄 설리번(알래스카) 의원과 함께 미국 공화당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29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방한함.

2016. 5. 31.

##### ■ 한미일 6자수석 내일 도쿄서 회동…안보리 결의 이행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음 달 1일 도쿄에서 회동할 예정임. 지난달 20일 서울에서의 조찬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임.
- 우리 측에서는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임.
- 이번 회동에서는 다음 달 2일로 석 달째를 맞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7차 당 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를 공유함.

2016. 6. 1.

##### ■ 한미일, 대북 압력 통해 북한이 생각 바꾸게 해야(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대북 압력을 통해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1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고 이시카네 국장이 밝힘.
- 이시카네 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생각을 바꿔 비핵화를 향해 의미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말함.

## 2016. 6. 2.

### ■ 한일 핵무장 대비...美워싱턴서 ‘한미일 핵공동관리론’ 대두(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을 막기 위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일 3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모델처럼 핵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 내에서 제기됨.
- 이는 이른바 핵우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핵 확장역지 정책과 아태 지역 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주장이어서 앞으로의 논의 동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독립적 초당파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펴낸 ‘2차 핵시대의 확장역지: 지정학, 확산, 그리고 미국안보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함.
- 보고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감안할 때 어느 한쪽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또 다른 쪽으로서는 이를 따라가려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함.

## 2016. 6. 3.

### ■ 아사히 “美, 한국에 ‘남중국해분쟁 중재판결 지지’ 표명 요청”(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필리핀 간에 진행 중인 국제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판결 지지 입장을 미리 표명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중재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이 ‘관계국은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라는 비공식 요청을 했다고 한미관계 소식통 등이 밝힘.
- 한국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태도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함.

■ **한미 재무장관회의 오늘 개최...환율·통상문제 논의될 듯(연합뉴스)**

- 한미 양국 경제수장이 3일 서울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금융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함.
-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특별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환율과 통상, 대북 제재 등 민감한 이슈가 대상에 오를지 주목됨.
-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제이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나. 한·중 관계**

2016. 5. 29.

■ **한·중 자치단체장 회의 첫 개최...중국 고위급 일제히 방한(연합뉴스)**

- 다음 달 한국과 중국 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열림.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은 내달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중국측 대표로 뤼쑹장춘(洛桑江村) 시짱자치구 주석과 산시(陝西)성 량구이(梁桂) 선전부장(부성장급), 톈진(天津)시 자오하이산(趙海山) 부시장, 허난(河南)성 왕옌링(王艷玲) 부성장, 윈난(雲南)성 허단치(和段琪) 부성장 등이 참석한다고 29일 밝힘.
- 한중 간 지자체 교류는 올해가 처음임. 한중지사성장들은 ‘한중 FTA 체결 1주년에 따른 지방정부 교류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제, 문화, 관광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양국 간 우호를 돈독히 한다는 방침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한중지사성장회의를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할 계획임.

2016. 6. 1.

■ **中, 한국에 ‘리수용 방중 통보한 듯·소식통, 우회회법으로 시사(연합뉴스)**

-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 측의 우리 정부에 대한 사전 통보 여부에 관심이 쏠림. 우리 정부 당국자는 명확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우회적 회법으로 통보를 받았음을 시사함.
- 정부 소식통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중간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전날 정부 입장에 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리 부위원장의 방중 여부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인

해줄 사안이 아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자로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힘.

## 다. 한·일 관계

2016. 5. 29.

### ■ 日, 독도는 일본땅 주장 사료관 개관...축하행사에 차관급 참석(연합뉴스)

-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홍보하는 사료관이 다음 달 1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문을 옴.
- 교도통신에 따르면 독도에 관해 조사 연구하는 거점인 ‘구미다케시마(久見竹島)역사관’(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隱岐の島町> 소재)의 개관을 앞두고 이 역사관에서 29일 축하 행사가 열림.
- 행사에는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 일본 내각부 정무관(차관급) 등 약 60명이 참석함.
- 당국은 사료관을 일본의 초·중학생의 학습에도 활용할 방침이라서 이곳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홍보·재생산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임.

2016. 6. 3.

### ■ 신각수 前주일대사 “한일, 남북통일 협의 본격화해야”(연합뉴스)

-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3일 “한일 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한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 신 전 대사는 3일 일본 도쿄 정책연구대학원대학에서 사단법인 포럼오래(회장 함승희),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와세다대 아태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힘.
- 신 전 대사는 “일본이 통일에 협력하는 것은 한국인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조만간 닥쳐올 한반도 통일과 북한지역의 부흥을 위한 일본의 협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함.

## 라. 한·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5. 28.

#### ■ 中사회과학원, 美대선 과정에서 미중관계 심각하게 악화(연합뉴스)

- 미국 대통령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중국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옴.
- 28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미국연구보고 청서(2016)’를 통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대중 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봄.
- 니펑(倪峰)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미중 상호관계는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미중관계는 저점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마땅한 해법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함. 이중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중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한 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2016. 5. 30.

#### ■ 美국방 “中, 남중국해에 만리장성 구축”비판…中 발끈(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공세를 만리장성에 빗대어 비판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섬.
- 30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외신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이 유례없는 군사적 확장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함.
- 중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이해 당사국들과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인공섬 건설, 각종 첨단무기 배치 등을 통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미국은 이에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며 항공모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동원한 순찰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음.

#### ■ 中 남중국해 함대 군사훈련에 마-일-호주 추적감시(연합뉴스)

- 중국군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동안 미국, 일본, 호주의 함정과 정찰기들이 추적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지난 4일부터 23일간 원양 군사훈련을 가졌던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 함대가 미국, 일본, 호주로부터 미행

감시를 당했다고 30일 보도함. 감시 활동에는 이들 3국의 군함 5척과 정찰기, 초계기 5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일본 방문을 즈음해 이뤄진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미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을 향해 경고성 무력시위를 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음.

## 2016. 6. 2.

### ■ 美, 관계복원 모색 北-中에 강력 경고?...비핵화 원칙 거듭 강조(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전격 지정한 것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보임.
-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격인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회동 직후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이 북핵 위협을 지렛대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중국 혼자서도 북한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 일행을 접견했고, 이에 미 정부가 사실상 중국까지 겨냥한 북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카드를 예상보다 빨리 꺼냈다는 것임.

### ■ 미·중, 북한 놓고 기싸움 팽팽...내주 전략대화서 격돌(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화해와 제재 카드를 꺼내며 격돌하고 있음.
- 내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 대화(6월 6~8일)를 앞두고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무역 불균형 등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기선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임.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중 전략대화에서 북한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미·중 전략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이처럼 내주 미·중 전략대화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북한 문제뿐 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을 비롯한 각종 이해 지역의 패권 다툼이 걸려있기 때문임.

### ■ 美ITC, 중국산 철강 담합 등 조사척수...미·중 무역전쟁 불씨(연합뉴스)

-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미국내 철강회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검토함.
- 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ITC는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이 ‘중국 회사

들이 자사의 생산 기밀을 절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키로 공식 결정함.

■ 中, '北자금세탁우려국' 지정에 "독자적 제재 반대"(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를 제한한 것에 대해 특정 국가의 독자적 제재를 반대한다고 2일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그 어떤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은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각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고 이를 통해 조선(북한)이 핵미사일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제한하거나 저지해야한다고 여긴다"며 "동시에 각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함.

2016. 6. 3.

■ 美상무부 中통신기업 화웨이 조사 파장...北동고 美中 갈등 격화(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 북핵 해법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차와, 갈수록 고조되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미국의 강경 조치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임.
- 미 상무부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華爲)에 북한과 이란, 수단, 쿠바, 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대상 국가들에 대한 제품 수출 및 재수출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안의 성격과 상징성을 감안할 때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SJ은 이번 조사가 양국 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새로운 진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양국 간 갈등의 북핵, 남중국해를 넘어 기술 분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는 셈임.
- 실제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미 재무부가 전날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전격 지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와 여러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음.

나. 미·일 관계

2016. 5. 28.

#### ■ 미국인 “원폭투하 잘한 일?” 의견 반반…백인·남성 지지율 높아(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반반으로 엇갈림.
- 27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전국 성인 1천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4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남.
- 성별, 인종, 지지 정당, 나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름. 백인 응답자의 49%, 남성의 58%, 공화당 지지자의 60%가 원폭 투하는 잘한 일이라고 답했지만, 유색인 응답자의 62%, 여성 54%, 민주당 지지자 56%는 그렇지 않다고 답함.
- 세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해서 55~64세는 원폭 투하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9%, 65세 이상은 50%에 달했지만 45~54세의 41%, 35~44세의 50%, 18~34세의 52%는 원폭 투하를 지지하지 않음.

#### ■ 역사적 포옹…견고한 미일동맹 확인시킨 오바마(연합뉴스)

- 27일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아사히와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인터넷판 머릿기사로 소개하면서 오바마와 현장에 있던 피폭자 모리 시게아키(森重昭·79) 씨의 포옹 사진을 실음.
- 비록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7분간의 연설에서 사죄는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한 번의 포옹이 주는 울림은 커 보임. 두 나라가 적에서 동맹으로 바뀐 역사를 말해주는 한편 밀월기로 불리는 현재의 미일관계를 그대로 보여줌.
- 결국 이번 오바마의 히로시마행은 중국의 대두와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용인을 계기로 더욱 견고해진 미일동맹의 현재를 보여준 상징적 이벤트로 평가될 전망이다.

#### ■ 美언론, 오바마 히로시마행에 “사과 안하며 핵위협성 부각”(연합뉴스)

- 미국 언론은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71년 만에 처음으로 원폭 피폭지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한 역사적 행보를 주요 기사로 다룸.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적인 피폭의 현장에서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재앙적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해온 ‘핵무기 없는 세상’ 이니셔티브를 부각시키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옴.
- 아울러 2차대전 당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는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 ■ 오바마 히로시마서 비핵화 강조했지만 핵군축 방안은 없어(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했지만 핵군축의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끌어내며 향후 핵군축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일본도 핵 보유국인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어 핵군축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짐.
- 아사히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따라 히로시마는 핵군축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 무대에서 상징적 지위를 얻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핵군축의 방법이나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의 관건”이라고 강조함.

#### ■ 촘스키 등 美학자 80명, 美정부에 “오키나와 기지 철수해야”(연합뉴스)

- 놉 촘스키를 포함한 학자·시민운동가 80여 명이 미 군무원 일본인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한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철수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함.
-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놉 촘스키와 피터 쿠즈닉 아메리칸대 교수 등은 최근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와 이번 살해사건과 주일미군 철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에 경악했다”며 “우리는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원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밝힘.

2016. 5. 29.

#### ■ 日언론,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역사적…핵 없는 세상 멀다(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이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함.
- 아사히(朝日)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 시대 역사의 한 장(章)으로서 특필(特筆)될 것”이라며 핵 군축의 기운을 다시 높여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피폭지에서 (그런) 결의를 새롭게 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는 사실을 28일 실음.
-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중국이 핵 군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인도·파키스탄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참여하지 않는 등 “핵 없는 세상은 멀다”고 평가함.

2016. 6. 1.

#### ■ 美 대통령 전용기서 日외무성에 전화 “히로시마 환영 고맙다”(연합뉴스)

- 원폭 투하 71년 만에 현직 최초로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귀국 도중 기내에서 자신을 환영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일본 측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1일 아사히(朝日)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도중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측근에게 외무성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전화를 하도록 함.
- 미국 측은 전화에서 “히로시마의 여러분이 환영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싶다”는 언급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31일 열린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공개함.

## 다. 미·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라. 중·일 관계

2016. 5. 29.

### ■ 아베, 베트남·스리랑카와 中 해양진출 공동대응 합의(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거점화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
-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베트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베트남에 해상 방어 능력 강화에 협력하겠다”며 해상 순시선 제공 의사를 밝힘.
- 아베 총리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차드 총리와의 잇따라 만나 인프라 정비 투자 등에 합의함. 아베 총리는 스리랑카에는 순시선 2척과 380억엔(약 4천87억원)의 인프라 정비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방글라데시에도 1천735억엔의 인프라 정비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2016. 5. 30.

### ■ 일본, 센카쿠 인근섬 자위대배치 앞당긴다…中견제 전격음(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가까운 섬에 자위대 배치를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沖縄)현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육상자위대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에 애초 구상보다 2년 앞당겨 착수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0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주둔지 등 자위대 배치에 필요한 용지 취득 등 관련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요구서에 100억 엔(약 1천74억원) 전후의 자금을 반영할 계획임.

2016. 5. 31.

■ 中, 'G7 남중국해 선언' 日에 항의...대사 초치한 듯(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거점화를 시도하는 자국을 견제한 주요 7개국(G7) 정상선언과 관련,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양국 언론 매체들이 보도함.
- 중국 씨우후망은 31일 교도통신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 외교관들에게 항의했다고 전함.
- 중국 정부는 “일본이 주최한 이번 G7 정상회의는 남중국해 긴장을 부채질했고 이는 남중국해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과 G7의 이런 방식에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음.

■ 中 외교부 “위안부 세계유산, 피해국 민간단체가 신청 검토”(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한국과 중국의 민간단체가 신청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중국 정부에 의해 확인됨.
- 중국 외교부는 이에 관한 질의에 “현재 피해국 민간 조직이 공동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사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관측통들은 이를 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가 등재되는 것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하고 있음.

2016. 6. 2.

■ 日, 위안부 자료 세계유산신청에 경계...모든 힘 다해 저지(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강한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음. 일본 정부는 중국이 신청한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작년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했는데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청 내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고 싶다면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포함해 일본 정부로서 가능한 일을 검토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반응함.
- 일본 정부는 난징대학살 등재 이후 세계기록유산 심사 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국이 부담하는 유네스코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함.

**마. 중·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6. 6. 1.

## ■ 러시아, '쿠릴열도 반환 안한다' 거듭 강조(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일본에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해 일본이 속앓이를 하고 있음.
-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모스크바 대중지인 콥소몰리스카야 프라우다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쿠릴열도가 (옛 소련에) 넘어가는 것으로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지적하고 “2차대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토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없다”고 강조함.
- NHK에 따르면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국방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라브로프 장관의 인터뷰 전날인 5월 30일 쿠릴 4개섬 중 큰 섬인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와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를 방문, 군 관련 시설 건설현장을 시찰함. 러시아는 이들 두개 섬에 병사들의 숙소 등 400여 개의 군사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등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5.30	유럽내 北노동자 강제노동·직업중 참혹한 죽음도(연합뉴스)
	5.31	유엔北인권보고관, 김정은 체제 인권개선 가능성 없어·차별모색(연합뉴스)
		전세계 4천500만 명 현대판 노예·북한 인구당 비율 1위(연합뉴스) 북한인권단체, 워싱턴서 음악회 등 통해 북한 상황 알려(미국의소리)
6.1	북 해외 노동자 실태 책자 5개 언어로 출간(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6.1	北, 식당종업원 납치됐다며 반기문 총장에 송환촉구 서한(연합뉴스)
	6.2	北, 여종업원 3명 탈북에 비열한 강제납치 주장(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5.28	탈북자단체, '北 임진강 방류 규탄' 대북전단 살포(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5.28	집단탈북 종업원에 인민배우 최삼숙 딸 포함(자유아시아방송)
	5.30	탈출 북한식당 종업원 3명, 이번 주 국내 입국할 듯(연합뉴스)
납북자 국문공포	5.31	링크, 탈북자 505명 구출(자유아시아방송)
	6.1	중국내 북한식당서 탈출한 女종업원 3명 입국(연합뉴스)
대북지원	5.28	FAO, 北 작년 쌀수확 180만 톤 추정...아시아서 가장 부족(연합뉴스)
	6.2	유엔, 北에 부족자금 800만 달러 지원(자유아시아방송)
	6.3	FAO, 北 식량부족분 3.3% 확보...식량부족국가 재지정(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5. 30.

#### ■ 유럽내 北노동자 강제노동…작업중 참혹한 죽음도(연합뉴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가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 위반, 산업안전 법규 위반.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술, 담뱃값을 빼곤 거의 모두 몰수당하는 강제노동. 유럽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 노동 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강제노동을 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옴.
- 3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EU(유럽연합) 내 북한 강제 노역, 폴란드 사례’ 예비보고서(이하 보고서)에는 이런 실태가 담김.
- 유엔은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북한은 체제 붕괴를 막을 수단으로 노동자를 외국으로 보내 외화벌이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연구진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우선 EU 회원국과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지위를 통지하고, 중개회사와 하도급업체에는 책무를 알려야 한다고 주문함. 아울러 북한 노동자 근로 조건과 관련된 EU 내 인권과 노동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각국 노동당국도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소송 등을 통한 노동자 보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함.

2016. 5. 31.

#### ■ 유엔北인권보고관, 김정은 체제 인권개선 가능성 없어…처벌모색(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김정은에 대한 처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힘.
- 다루스만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코헤이우 브라질리엔스와 인터뷰를 통해 “6개월 임기 동안 김정은 정권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북한 인권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함.
-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이 끝내 개선되지 않으면 유엔 전문가 패널이 내년 3월에 김정은에 대한 처벌을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함.

■ **전세계 4천580만 명 현대판 노예…북한, 인구당 비율 1위(연합뉴스)**

- 전 세계에서 4천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 노예 상태에 처한 사람의 수는 인도가 가장 많았지만,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북한이 1위임.
- 31일(현지시간)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이 발표한 세계노예지수에 따르면 노예 상태로 태어났거나 성매매를 위해 납치된 사람, 빚을 갚기 위해 붙잡혀있거나 공장, 광산,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은 4천580만 명으로 추산함.

■ **북한인권단체, 워싱턴서 음악회 등 통해 북한 상황 알려(미국의소리)**

- 지난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NKSC 오픈 마이크 기금마련’ 행사는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전략센터 미주 지부와 존스 홉킨스 대학 산하 비영리단체인 세종 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함.
- 북한전략센터(North Korea Strategy Center)는 요덕 15호 관리소 혁명화 구역 수감자 출신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상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리린 탈북자 강철환씨가 지난 2007년 세운 단체로 지난 해 미주지부를 열었음.
- 주미한국대사관을 비롯해 6개 단체가 후원해 마련된 이 행사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음악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북한인권 상황을 알고, 북한사람 누구나 정보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됨.
- 북한전략센터 미주지부(NKSC US) 크리스틴 한 사무총장은 누구나 쉽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말함.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의 학술회의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음악회처럼 쉽고 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 한편 이날 행사는 이 단체가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탈북자 언론인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했음. 이 단체는 지금까지 230여명의 한국 내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언론인 프로그램을 운영함. 올 여름 이 프로그램을 한층 넓혀서 탈북 학생들과 미국 내 전문가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멘토링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임.

2016. 6. 1.

■ **북 해외 노동자 실태 책자 5개 언어로 출간(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이승주 연구원은 1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책자 ‘울타리 없는 감옥: 북한 땅보다 더한 노예노동 현장’을 발간했다고 밝힘.
-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판 노예’와 같은

-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으로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70퍼센트 이상 착취해 연간 1억 2천만에서 2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함. 따라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에게 ‘생명선과도 같은 외화수익 창구’라고 이 단체는 지적함.
  - 이 단체는 폴란드 즉 벨스카와 몽골의 해외 노동자 인권 유린 현황을 상세히 밝힌 책자도 발간할 계획임.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6. 1.

### ■ 北, 식당종업원 납치됐다며 반기문 총장에 송환촉구 서한(연합뉴스)

-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달 집단 탈북한 식당종업원들이 한국 정보기관에 납치됐다며 이들이 즉시 송환되도록 나서라는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탈북한 종업원의 가족들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각각 보냈음에도 양측이 행동에 나서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요구함.

2016. 6. 2.

### ■ 北, 여종업원 3명 탈북에 비열한 강제납치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내륙 산시(陝西)성 소재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최근 입국한 데 대해 비열한 강제납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죄와 종업원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함.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지난 4월 우리 주민 12명을 집단유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괴뢰 국정원 깡패들에 의한 조직적이며 비열한 강제납치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괴뢰 국정원 깡패들이 중국 위남시의 평양선봉관에 근무하는 우리 종업원 2명을 유인납치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신분을 위장하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는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앞에 사죄하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며 끌어간 우리 주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5. 28.

#### ■ 탈북자단체, '北 임진강 방류 규탄' 대북전단 살포(연합뉴스)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8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근처에서 북한의 임진강 방류를 규탄하는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이날 오전 7시께 대북전단 30만 장과 1달러 지폐 2천 장, USB와 DVD 1천 개를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움.
- 풍선에는 '대한민국엔 핵폭탄 물폭탄, 미국엔 평화협정 구걸'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도 매달음.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이 갑자기 수문을 열어 임진강 파주지역에 물폭탄을 퍼붓고,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어제(27일) 일본에서 열린 G7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힘.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6. 5. 28.

#### ■ 집단탈북 종업원에 인민배우 최삼숙 딸 포함(자유아시아방송)

- 지난달 초 중국에서 집단탈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가운데 북한 최고의 가수로 유명한 인민배우 최삼숙의 딸이 포함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방송은 탈북 종업원 부모들이 서명한 인신구제신청서가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됐다면서 "북한에서 최고 인기를 누렸던 최삼숙의 이름도 (부모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힘.
- 평양출신 고위 탈북자는 "최삼숙은 1970년대와 80년대 김옥선과 함께 인민 배우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면서 "이런 최 씨의 딸이 남한으로 귀순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강조함.

2016. 5. 30.

#### ■ 탈출 북한식당 종업원 3명, 이번 주 국내 입국할 듯(연합뉴스)

- 이달 중순 중국 내륙의 산시(陝西)성 소재 한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조만간 국내 입국할 것으로 30일 알려짐. 이들은 태국 소재 탈북민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짐.
-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 3명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내

입국할 것”이라며 “이들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한국의 관계기관이 현지 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에 탈북한 여성 종업원 3명은 모두 평양 출신으로, 두 명은 29세, 나머지는 한 명은 28세인 것으로 알려짐.

2016. 5. 31.

■ 링크, 탈북자 505명 구출(자유아시아방송)

- 링크(LiNK)의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이 단체가 구출한 중국 내 탈북자 수가 505명이라고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구출 탈북자 중 여성은 340명, 남성은 165명으로 여성의 수가 남성의 두 배보다 많음. 미성년자도 100명에 달함. 또한 246명이 가족과 함께 구출되었고, 가족과 만난 사람은 이 중 280여 명임. 링크는 탈북자 구출활동 이외에 탈북자의 제3국 정착 지원, 탈북자 교육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벌이고 있음.
- 중국 내 탈북자 한 명을 구출해 새로운 삶에 정착하도록 돕는 비용은 약 3천 달러임. 안전한 곳에 정착할 때까지 기본적인 음식과 옷 등을 제공하는 데 약 250 달러, 이동용 교통수단에 500달러, 숙박비 100달러, 벌금 등 구출비용 1천 350달러, 비상금 등 예비비 300달러, 정착 후 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500달러 등임.

2016. 6. 1.

■ 중국내 북한식당서 탈출한 女종업원 3명 입국(연합뉴스)

- 지난달 중순 중국 내륙의 산시(陝西)성 소재 한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입국한 것으로 1일 확인됨.
- 정부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들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말함.
- 통일부는 “최근 제3국에서 근무하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며 “입국경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힘.

## 5. 대북지원

2016. 5. 28.

■ FAO, 北 작년 쌀수확 180만 추정...아시아서 가장 부족(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 추정치를 150만 t에서 180만 t으로 수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쌀 수확량이 지난해 10월 전망했던 150만 t보다 30만 t 늘었다”면서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이 부진했을 것이라던 분석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FAO는 “북한이 올해 수입 예정인 10만 t을 더하면 모두 190만 t의 쌀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북한은 조사 대상인 아시아 14개국 중 쌀이 가장 부족한 나라”라고 밝힘.

## 2016. 6. 2.

### ■ 유엔, 北에 부족자금 800만 달러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이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부족한 9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800만 달러(95억4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RFA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의 상반기 사업 보고서를 인용해 “자금부족 지원금, 즉 인도주의적 상황이 가장 심각한 가운데 국제사회 지원이 충분치 않은 국가들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이 배정받았다”고 밝힘.
- 유엔은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주민 약 210만 명 중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 명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에 긴급자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RFA는 전함.

## 2016. 6. 3.

### ■ FAO, 北 식량부족분 3.3% 확보...식량부족국가 재지정(연합뉴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FAO는 전날 공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제목의 올해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37개국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힘.
- FAO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해옴. 이번 분기 식량부족국가에는 이밖에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이 포함됨.